

“친구들과 황톳길 맨발걷기 재미있어요~”

신안 하의초 ‘학교공간 재구조화’ 힐링황톳길 조성 점심시간 등에 이용...균형 감각·전인적 성장 도움

“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맨발걷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맨발걷기의 열풍이 신안 섬 지역 초등학교까지 확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안 하의초등학교는 올해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늘꿈센터’와 ‘힐링황톳길’을 조성했다.

하늘꿈센터와 힐링황톳길이 연결돼 있는데 학생들은 중간놀이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에 힐링황톳길에서 맨발걷기를 하고 있다.

맨발걷기는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맨발이 땅바닥에 닿으면서 발에 있는 신경반사구나 신경말단 등이 자연스럽게 자극돼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크다.

고유감각(자세, 평형, 운동 방향에 대한 감

각) 향상 효과도 큰데 학생들은 균형을 잡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발과 다리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맨발걷기를 처음 해본 한 학생은 “학교에 황톳길이 생겨 맨발걷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흙이 부드러워서 좋았다. 또 걸을 때마다 발바닥을 받는 것처럼 시원하다”며 “걷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1석2조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도 “힐링황톳길 맨발걷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는 물론 자연을 더 가깝게 마주하고 있다”며 “그래서인지 전보다 더 활기찬 느낌이 든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신숙녀 하의초등학교 교장은 “평소 맨발걷기의 효능을 알고 틈이 날 때마다 모래구미 해변



신안 하의초등학교는 올해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힐링황톳길’을 조성했다. 학생들은 중간놀이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에 맨발걷기를 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자연을 더 가깝게 느끼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을 걸었다. 걸으면서 학생들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힐링황톳길이 조성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올해는 자유롭게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침 건강걷기 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움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기기자



‘대·자·보 출퇴근 챌린지’...姜시장, 첫 주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1천200원 대중교통 출근길’에 나섰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시민 공감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선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 집을 나서 북구 문산중 정류장에서 ‘문흥18’ 버스를 타고 17개 버스정류장을 지나 경신여고 정류장에서 ‘좌석02’로 환승, 4개 정류장을 더 지난 뒤 광주시청에 도착했다. 꼬박 1시간이 걸렸다.

강 시장이 이날 시내버스를 택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해 시민들과 함께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전면적인 교통시스템 전환을 꾀하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해당 챌린지에 광주시의회, 교육청, 공직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도시철도2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범시민 대·자·보 실천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사람을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늘리는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경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성료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지난 7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건 의료계 인사, 건협동우회, 전 임원 및 퇴직 직원,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김인원 회장 기념사,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및 최효정 서울시의회 의장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정부포상 등 시상식과 함께 60년의 역사,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건협 통합 브랜드가 선포됐다.

또한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부산 사상구 보건소에 제60호 장애인특화차량을 전달했으며, 한국회귀·난치성질환 환우의 치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지난 60년간 건협은 기생충 박멸의 선화를 이루고, 건강검진 체계 정착에 기여하는 등 국민 건강을 향한 도전의 역사를 써왔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해 국민을 위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선한기관으로 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전남자율방범연합회 ‘지역 안전 지키기’ 결의대회

전남자율방범연합회가 한 해 성과 공유 및 소통 화합 증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최근 보성 제암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정경채 사무국장, 조팔석 전남도 자율방범대연합회장, 시·군 자율방범대연합대원 200여명과 전남도의회 운영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김재철 도의원, 고은경 보성경찰서장이 함께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 및 치안행정 발전 유공자 23명에게 전남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40여명을 포상했다.

전남자율방범대연합회에는 시·군, 읍·면·동 자율방범대 등 총 326개 7천88명의 자율방범대

원이 참여하고 있다. 야간 순찰,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지역 행사 안전관리 지원 활동을 통해 자치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끝없는 봉사 정신으로 현장에서 활약 중인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2기 자치경찰 위원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실현을 위해 협력단체에 대한 예산, 장비, 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0회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용구 전남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이오니스, 광주시·전남도에 공기청정기 2만4천개 기부

(주)이오니스가 광주·전남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6억4천만원 상당의 플러그형 공기청정기 2만4천개를 광주시·전남도에 기부했다.

광주시는 11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 장석은 이오니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광주시에 전달된 플러그형 공기청정기는 1만2천개로(3억2천만원 상당)로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을 통해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도도 같은 날 오후 도청에서 김영록 지사, 장석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



식을 갖고 (주)이오니스로부터 플러그형 공기청정기 1만2천개를 기탁받았다. /박선강·양시원기자

목포시 용해동 지사協 ‘The(더) 따스한 나눔’ 추진

목포시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The 따스한 나눔사업’을 추진, 저소득 취약계층 50세대에 라면·계란(약 15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저소득 모자 가정 1세대에 장학금 4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용해동 지사협은 “The 따스한 나눔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 1인 및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식을 지원하고 경제 어려움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장학금을 지원한 저소득 모자가 정세대는 자녀가 관상동맥 거대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고, 얼마 또한 당뇨 및 갑상선암 후유증으로 정상적 근무를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주환 용해동 지사협 위원장은 “특화사업 추진으로 작은 나눔을 모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며 “또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아시아서적문학상 대상에 최성식 시인



제16회 아시아서적문학상 대상에 최성식(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계간 아시아서적문학은 최근 광주지역 문단과 아시아서적문학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작품 심사를 마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 최성식 시인을 비롯해 작품상으로는 시 부문 신옥비, 시조 부문 이소영, 수필 부문 고희국 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15일 오후 2시 전일빌딩 215층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다. /최병진기자

양관운 AF인베스트먼트 대표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1억 기탁



양관운(사진) AF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전남대학교 병원에 발전후원금 1억원을 기탁했다.

1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양 대표는 최근 의정갈등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전달했다.

양 대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광주지역 제9회 회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지원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후원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실천해왔다.

뿐만 아니라 양 대표는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난 2018년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 12억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고려대학교의료원에 6억5천만원의 의학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은 물론 의료계 발전을 위해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양관운 대표는 “지역의료 버팀목인 전남대병원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새병원 건립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병원이 앞으로도 미래의료를 이끄는 최고의 국립대병원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담양읍 지사協, 백동LH2단지 김장나눔 행사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백동LH2단지 주차장에서 200여가구를 대상으로 김장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김종화 담양읍장을 비롯해 주미경 부읍장, 최정숙 여성자원봉사회장, 박영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장, 해림복지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복지재단 공모사업 선정과 담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마을복지사업이다.

박영수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 보완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통한 향촌 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결혼

▲최동현(전남일보 취재2부 선임부장)-정당금 씨 장남 정군군, 박경척-정숙씨씨 장녀 예린양 =17일(일) 오전 11시 광주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김원봉-임혜경씨 장남 진호(베스트디자인 제1연구소 연구원), 윤사선(건양건설 대표)-허윤숙씨 차녀 지원(MCM Korea 디자이너)양=16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갑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10-5467-4150.

▲김재삼-김필숙씨 차남 건우군, 박종철(담양청축 대표)-김정옥씨 장녀 윤양=17일(일) 오후 12시30분 하우스 오브 드레드 1층 지젤홀,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51(도천동 147-29). 062-228-0000, 010-3602-1966